

< >
*

김용호(서울대)**

I.
II. 1970
III. :
IV. < > :
V.

I. 서론

내 생각에 비평은 일종의 근대적 형태의 자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평가는 그의 독서행위를 기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 비평가는 그가 읽은 텍스트의 내면에 그의 삶을 재구성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평은 프로이트 이후의 일종의 자서전인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갖고있는 이론적.정치적.문화적 자서전 말입니다. 내가 비평을 자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비평이 명확한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Piglia, 2000a: 13).

예술은 항상 동일한 예술일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예술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새로운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며 ... 오직 예술작품이 있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 2002-072-AL2010).

** Yong-H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Los aspectos de la resistencia y de los recuerdos de <la guerra sucia> argentina".

을 뿐이다. 이 스케치는 살아 있는 그 자체이며 ... 새 예술가는 필히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그 자신이어야만 한다. 그는 창조자이어야만 하고 과거의 어떤 전통도 받아들임 없이 전적으로 홀로 기초를 세워야만 한다(김광우, 2003: 318).

19세기말부터 로사스(Rosas) 등 수많은 독재자와 군부쿠데타의 고통이 끊이지 않던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최근의 기억은 아마도 <더러운 전쟁>에 대한 기억일 것이다. 1976년에서 83년 사이에 자행된 이 추악한 행위에 대해 군부 통치자들은 <국가 재건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큰 차이를 형성한다. <국가 재건 과정>과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선택되는 기억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선택적 기억들이 거의 그러하듯, 어떤 기억들이 그 시대의 맥락에서 벗어나 특권화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현실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약 2만 명에 이르는 실종자 숫자와 200만 명에 이르는 망명자 숫자, 그리고 영.유아 탈취라는 희대의 범죄행위까지 자행한 잔혹한 군부의 장막 뒤에는 오늘 아르헨티나의 특권정당의 하나인 페론당과 그 지도자들의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과거가 놓여있으며, 지나간 시대를 기억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아르헨티나 일반 민중들의 자기책임 또한 빠져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시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해자들은 만성적인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매주 목요일 광장집회를 통해 책임자 규명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없는 사회 아니 가해자는 있되 가해의식은 없는 사회, 그렇기에 오직 피해의식으로만 뭉친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 증오로 대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회는 불행한 사회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러운 전쟁> 시기의 문학과 그를 기억하는 문학들에 대한 재조명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문화정체성 형성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사에 대한 망각과 식상함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자신들에 대한 성찰을 심어주는 것만

이 새로운 비극의 탄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비나스(Las Malvinas)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군부가 퇴장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알폰신(Raúl Alfonsín)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실패했으며, 메넴의 신자유주의 정책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런데 세계는 점점 더 보수화와 우익화의 길로 나아가며, 이로 인해 테러리즘과 바바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재현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독립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33년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술한 독재의 역사와 1930년, 43년, 55년, 62년, 76년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군부쿠데타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러므로 지나간 비극적 시대에 대한 기억과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에서 배운 과거의 경험을 성찰한 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만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197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양상

독재정치는 억압을 조장하고, 노예근성을 조장하며, 잔혹함을 조장한다. 그러나 더욱 고약한 것은 독재정치가 어리석음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말을 못하게 강압적인 싹들, 총통의 화신들, 미리 정해진 삶과 죽음들, 선전문구들로 장식된 벽들, 일사불란한 의식들, 단순한 규율들이 광휘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슬프도록 단조로운 것들과 싸우는 것이 작가의 많은 의무들 중의 하나이다(Orgambide, 1999: 276-277).

30년 뒤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될지 모른 채 친구들과 나눴던 보르헤스(Borges)의 말로써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은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보르헤스는 페론 정권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여 이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1976년 군사정권의 독재정치를 옹호하는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1973년 선거에서 보수 반동

적인 정당인 ‘새로운 힘’(Nueva Fuerza)에 투표했던 보르헤스에게 비델라(Jorge Rafael Videla)를 필두로 한 군부의 쿠데타는 카톨릭의 도덕적 가치와 서구적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적극 지지할 만한 것이었다. 그에겐 군사정권의 학살행위도 동료문인들의 납치 및 행방불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기에,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수많은 강연회를 통해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다녔다.

내 생각에 독재정치는 비난받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전쟁도 비난받을만한 것이 못돼구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거든요(Orgambide, 1999: 324).

독재정치는 억압과 노예근성과 잔혹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던 보르헤스가 30년 뒤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독재정치를 옹호할 정도로, 페론과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복잡한 사회.문화.정치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Corbatta, 1999: 15).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는 국가주의에 빠진 파시스트 독재자로 간주되며 하층민들에겐 포퓰리즘적인 진보주의자로 여겨진다. 1930년과 43년 등 거듭된 군부의 극우 철권통치)에 신음하던 일부 지식인들과 노동자 계층이 또 다른 군출신인 페론에게서 역사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역사의 아이러니다. 1945년 10월 17일 처음 정권을 획득해 10년 동안 권좌에 있었던 그는 재임기간 중 수많은 노동자우대 정책을 폈고, 이는 보수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55년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실각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좌파적 모습의 페론은 가르델(Gardel).체게바라(Che Guevara) 등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신화소를 구성하며, 극우적인 군부의 철권통치를 극복할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

1) 아르헨티나 군부는 1930년부터 1943년, 55년, 62년, 66년, 76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중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르헨티나엔 이미 68년부터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다섯 개의 무장단체²⁾가 존재했는데 점차 카톨릭에서 출발한 무장혁명단체인 몬토네로스³⁾와 고전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민중 혁명군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게 된다. 하지만 군부에 저항하는 그들의 목표에는 차이가 없었기에, 73년 선거에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며, 그 결과 65%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둬 페론을 권좌에 복귀시킨다(Jordán, 1993: 15). 국가주의적인 몬토네로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불안한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지만 늙고 병든 페론과 이사벨은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정치적 비전도 지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페론주의를 혁명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했던 민중혁명군이나, 국가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던 몬토네로스 양자 모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협 등 정치적 수단보다는 암살.납치.방화 등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74년 6월부터 이듬해인 75년 말까지 양측에 의해 희생된 숫자가 약 1,500명에 이르게 되며 (Corbatta, 1999: 21), 이러한 무정부적인 상태는 다시 아르헨티나 정치의 단골이었던 군부의 개입을 부르게 된다.

55년부터 83년까지 약 30년 동안 모두 여덟 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지만, 그 중에서도 호르헤 비델라를 필두로 한 1976년 3월 24일의 쿠데타 세력의 통치는 매우 잔혹하고 억압적이기로 유명하다. 군사정권은 만성적인 정치적 위기와 ‘아르헨티나 병’이라고까지 불리던 반복적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자신들의 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고문.살해하거나 실종자로 만들었다. 군사정권과 다른 생각을 갖고있는 노동계급과 청년층을 탄압하기 위해 그들은 군대.경찰.정보기관 등 공식적인 국가기구를 총동원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2) 다섯 개의 무장조직은 혁명군(FAR).페론주의 군대(FAP).해방군(FAL).몬토네로스(Montoneros).민중 혁명군(ERP)을 일컫는다.

3) 몬토네로스는 70년대 페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좌익무장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 출발은 우익 카톨릭 집단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에 그들에게선 반체국주의적 사회정의실현과 함께 국가주의적인 색채도 강하게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반공 동맹(*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으로 대표되는 극우 무장 세력들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탄압 대상과 형태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활동가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납치·고문·구타·암살·폭탄 테러·재산 강탈 등의 범죄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는 영·유아 탈취라는 희대의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실종된 숫자만도 최소한 약 20,000 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⁴⁾

프란시네 마시예요(*Francine Masiello*)는 이 시기 독재정권의 정치적 전략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민중들이 검열·감시·무차별 테러에 대한 절대적 공포를 느끼도록 해 외부의 일에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과, 월드컵·포클랜드 전쟁 등 대외적인 사건을 통해 국내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아니 더 나아가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파했다(*Masiello, 1988: 11-29*). 군사정권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치유해야만 될 사회적 병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두운 사회, 감옥 같은 사회에서 살게 됐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망명길에 오르는 수 밖에 없었다. 옛날엔 가장 큰 형벌로 간주되던 망명 즉 유배생활을 스스로 택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만 자그마치 2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Corbatta, 1999: 28*).

공포를 통해 강요된 침묵은 모든 아르헨티나 민중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특히 지식인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우리들의 뇌에는 부러진 연필과 굉장히 큰 지우개밖에 없더라는 마리아 엘레나 왈쉬(*María Elena Walsh*)의 79년도 언급은 거의 절규에 가깝다(*Avellaneda, 1986: 48*). 공포는 침묵을 낳았고, 침묵은 공범처럼 여겨졌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망명길에 올랐으며, 이 길에 안토니오 디베네데토(*Antonio Di Benedetto*), 마누엘 푸익(*Manuel Puig*), 후안 호세 사에르(*Juan Jose Saer*), 다니엘 모야노(*Daniel Moyano*), 움베르토 콘

4)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오월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의 주장에 따르면 실종자수는 약 30,000-4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스탄티니(Humberto Constantini), 다빗 비냐스(David Viñas), 뎀포 지아르디넬리(Mempo Giardileli), 노에 지트릭(Noé Jitrik), 루이사 발렌수엘라(Luisa Valenzuela), 오스발도 소리아노(Osvaldo Soriano) 등 많은 문인들이 동참하였다.

이들 문인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언어로써(Valenzuela, 1983: 7) 군사정권의 폭압과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고통을 서술하고 분석, 평가하면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저항하게 된다. 그것만이 그들이 고향을 등진 유일한 이유였기에, 소리아노는 더 이상 고통도 망각도 없을 것이다 (*No habrá más penas ni olvido*, 1978)와 겨울의 병영 (*Cuarteles de invierno*, 1980)을 발표하고, 발렌수엘라는 전쟁에서처럼 (*Como en la guerra*, 1977), 무기의 교체 (*Cambio de armas*, 1982), 도마뱀 꼬리 (*Cola de lagartija*, 1983) 등의 작품을 연속해서 발표하며, 푸익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건 (*The Buenos Aires Affair*, 1977), 천사의 음부 (*Pubis angelical*, 1979),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영원한 저주 있으라 (*Maldición eterna a quien lea estas paginas*, 1980) 등을 통해 군사정권의 압정을 고발하며, 사에르는 아무도, 아무 것도, 결코 없었다 (*Nadie, nada, nunca*, 1980)와 진짜 레몬 장수 (*El limonero real*, 1983)같은 작품들을 연속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들 작품들 속에서 작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감옥이나 겨울의 병영, 정신병원 등에 비유하며, 민중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수용되거나, 병도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강제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로 비유된다. 군사정권이 국가 재건을 위한 더러운 전쟁의 수행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병을 내세운 것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 아닌 환자를 수술하는 무자격 의사, 그리고 그 잘못된 수술로 인해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 이상한 환자의 상황이 작가들이 인식하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인 것이다.

작가들이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망각하지 말자는 자기다짐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록은 <더러운 전쟁>이 종식되고 83년 민정이 수립된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발렌수엘라의 침대

에서 바라본 국가의 현실 (*Realidad nacional desde la cama*, 1991), 균형 (*Simetrías*, 1993)이나, 푸익의 열대의 밤이 질 때 (*Cae la noche tropical*, 1988) 그리고 사에르의 주석 (*Glosa*, 1986), 강변없는 강 (*El río sin orillas*, 1991), 지울 수 없는 것 (*Lo imborrable*, 1993), 수색 (*Pesquisa*, 1994)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래의 역사에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군부독재가 오게 된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수 불가결하다. 역사가 사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문학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망제시를 위해선 과거에 대한 성찰과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테러의 만행이 자행된 것은 <더러운 전쟁>기만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전의 페론의 3차 집권기에도 이러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작가들 대부분이 1976년 이전부터 이 문제를 천착해 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발렌수엘라의 이곳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Aquí pasan cosas raras*, 1975)나 푸익의 거미여인의 키스 (*El beso de la mujer araña*, 1976)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거미여인의 키스의 몰리나와 발렌틴이 감옥에 수용되어 사랑을 이루어 가는 배경은 페론의 3차 집권기인 것이다. 또한 <더러운 전쟁>기에 발표된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은 페론 정부하의 아르헨티나의 사회, 정치 상황인 경우도 많다. 발렌수엘라의 소설 전쟁에서처럼 이나 푸익의 천사의 음부 등도 배경은 페론 치하이다.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와 더러운 전쟁의 원인이 페론주의의 환상과 신화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늙고 병든 페론과 그의 부인 이사벨은 집권기간 내내 아르헨티나를 통치할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페론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던 각 정파들의 분열과 정치적 투쟁, 그리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동원했던 테러 행위들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가들이 페론의 3차 집권기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페론 신화는 자연스럽게 예비타에게까지 이어진다.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Tomás Eloy Martínez)는 성녀 에비타 (*Santa Evita*, 1995)와 페론에 대한 소설 (*La novela de Perón*, 1996) 등을 통해 페론주의와 그 신화를 직접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러나 이 시기 모든 작가들이 망명이라는 수단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잔류해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1977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Carta a mis amigos*)를 마지막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실종된 로돌포 왈쉬(Rodolfo Walsh)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화자의 딸인 비키의 저항과 최후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비키(Vicki)의 입을 빌어 “군사정권,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했다”(2000: 282)고 외친다. 이렇듯 국내에 남아 정권을 직접 고발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다. “파시스트의 나라, 좀비의 나라에서 독재에 대한 모든 저항은 망명지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Sarlo, 1988: 101). 그렇기에 망명 작가들이 페론주의와 군사정권의 잔학상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면서 그들의 분노와 향수를 달래는데 반해, 아르헨티나에 남아서 저항하던 작가들의 작품은 수많은 상징과 언어의 이중성에 기대는 등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리카르도 피글리아(Ricardo Piglia), 아나 마리아 슈아(Ana María Shua) 등이 그들로, 그들은 친구들이 허겁지겁 망명길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실종소식을 들으면서 또는 산마르틴 광장에서 벌어진 학살소식을 접하면서도, 큰 소리로 외치거나 따져보지도 못한 채 묵묵히 울분을 삼키고 참아내야만 하는 작가들이었다. 베아트리스 사를로의 말에 의하면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망명길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를 버리고 살아 가야하는 뿌리뽑힌 삶에 대한 두려움 단 한가지 때문이었다(Sarlo, 1988: 104). 그러나 망명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권력의 만행과 검열이라는 이중고를 견뎌내야만 했다. 군사정권은 그들을 항상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며, 불신의 사회에 살게 만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리카르도 피글리아가 후에 비평과 허구 (*Crítica y ficción*)에서 밝힌 역사에 대한 언술은 음미해 볼 만하다.

아무 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다른 비슷한 상황들이 새로운 출구를 발견함으로써 종식되었음을 역사는 가르쳐준다고 따기는 말했다(Piglia, 2000a: 39).

검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작가들이 선택한 수단은 독특한 공간의 창출과 상상력의 교차 및 중첩 그리고 현재의 메타포로서 역사를 선택하는 것 등이었다. 언어의 다성적 특징을 살려 대화적 긴장을 창출하고, 장르의 교차 및 혼성을 시도하는 등 전통적인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문학을 생성하는 길만이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현재의 메타포로서 과거의 역사를 선택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피글리아의 *인공호흡 (Respiración artificial, 1980)*이다. 19세기 로사스(Rosas)의 공포정치 아래서 망명하지 않았던 펠릭스 프리아스(Félix Frías), 엔리케 라푸엔테(Enrique Lafuente) 등의 이야기와 히틀러와 카프카의 만남이라는 환상적 이야기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더러운 전쟁>기의 아르헨티나 군부를 홀로코스트로 대변되는 나치정권 및 로사스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군부를 로사스에 빗대 “살인자의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Piglia, 2000b: 39)라고 묘사한 부분은 가히 압권이라 할 만하다.

아나 마리아 슈아의 *나는 환자다 (Soy paciente, 1980)*는 언어의 이중성에 기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마리오 세사레오(Marío Cesáreo)는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사람의 몸은 항상 무엇인가 병에 걸려있으며, 작품은 그 치료법 즉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탐정구조로 되어있다고 분석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아나 마리아 슈아의 작품이다. 스페인어 *paciente*는 <환자>라는 의미와 <참을성이 있

는>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있는데, <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아르헨티나가 병에 걸려있다는 의미가 되어 군부의 의도에 순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참을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역으로 군사정권의 압제를 인내로써 저항하면서 미래를 기다린다는 저항의 문학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역사와 비유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독재정권이 비참하게 몰락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간직한 채 인내로써 현재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의 전략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작품은 역사소설의 기법을 떠나, 원인을 찾아나가는 탐정소설의 기법을 자주 사용하고, 언어의 이중성을 통해 검열을 피하면서, 군부정권이 강요하는 신화의 허상들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군사정권에 저항하던 문학과 그 이후 <더러운 전쟁>을 기억하는 문학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봤으며, 다음 장에선 그중 대표적인 작품 하나씩을 골라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한다. 푸익의 천사의 음부는 망명작가를 대표해서 골랐으며, 피글리아의 인공호흡은 국내에서 저항한 작가의 작품을 대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로이 마르티네스의 산타 에비타 와 호르헤 마론나(Jorge Maronna),페세티(Luis Maria Pescetti)가 공동으로 집필한 카피라이트 (Copyright)는 군사정부가 패퇴한 뒤의 작품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III.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들: 천사의 음부 와 인공호흡 을 중심으로

1979년에 발표된 푸익의 다섯 번째 소설 천사의 음부 는 망명작가들의 작품형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다른 많은 작품들처럼 이 작품의 공간도 밀폐된 공간의 전형인 멕시코의 한 병원이다.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거미여인의 키스 의 배경이 밀폐된 감옥이었다면, 이 소설의 배경은 또 다른 밀폐된 공간인 멕시코의

한 병원이다. 주인공인 아니타(Anita)는 암으로 멕시코의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페미니스트이자 변호사인 멕시코 친구 베아트리스(Beatriz)와 망명 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애인이었던 좌익 페론주의자요 인권변호사인 포지(Pozzi)의 방문을 받는데, 그는 아니타의 약혼자였던 우익 페론주의자이자 갑부인 알레한드로(Alejandro)를 납치하고자 아니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렇듯 전형적인 밀폐된 공간과 환자인 주인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1975년 페론 정부하의 아르헨티나의 사회·정치 상황을 재구성한다.

이 작품엔 2가지 층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베아트리스, 포지와와의 대화를 통해 아니타의 의식과 과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주는 외면적인 이야기 층위와 야간에 꾸는 꿈을 통해 그녀의 욕망과 무의식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내면적인 층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강요하는 남성 우월적인 성문화와 역할에 대한 비판은 양쪽의 층위에 공히 존재하는 요소이다. 푸익에 의하면 페론주의는 권력과 폭력에 경도된 남성우월주의 문화의 한 형태로 독일의 나치즘과 동일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자들의 세상이 축구, 권투, 사냥과 같은 세상이라면 /.../ 사실 그들 세계는 모든 종류의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찬 실세계와 흡사하다. /.../ 전쟁과 국가간의 히스테리적인 공격, 약자들을 수탈하는 세상이다. 그것은 그들이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술취한 채 귀가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히스테릭한 남편과 히틀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건 똑같은 것이다**(Puig, 1979: 230-231)(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이런 남성우월주의 문화는 미래사회가 도래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우월주의자인 남성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이용당할 것이다. 아니타는 밤 동안에 꿈을 꾸는데, 그녀의 꿈에는 1930년대의 <여주인>과 북극시대에 살고 있는 <W218>이라는 한 젊은 여자가 등장한다. <W218>은 노인과 불구자 및 기형아들에게 2년 동안 섹스치료를 하는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그녀의 삶은 중앙전자

시스템에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에 의해 지배된다. 2년간 개인적인 성관계가 금지된 미래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나은 멋지고 지적이며 이해심 많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LKJS>를 만나 그가 그녀의 이상형이라 믿으며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남성우월주의자였을 뿐이다. 그녀는 21번째 생일을 맞던 날 저녁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이상한 능력을 지녔음을 깨닫는다. 독신자 방에서 애인인 <LKJS>를 만나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이상한 능력 때문에 그 남자가 남성우월주의자이며,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며,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영원한 얼음병원>에서 성을 제공하도록 선고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남성우월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성들 또한 이러한 사회의 피해자이라는 것이 푸익의 생각이다. 유형지로 떠나는 기차역에서 만난 <LKJS>의 참회의 흐느낌과 이에 대한 <W218>의 위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괴롭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 위에 군림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쁜 짓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착취하고 싶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내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

당신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센 상급기관의 장난감에 불과했어요(Puig, 1979: 254-255)(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남성우월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인물들인 포지와 알레한드로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다. 극우 페론주의자요 갑부인 알레한드로는 “거짓말도 사실로 바꿀 수 있는 권력층에 있는”(104) 인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도청, 가택수색, 부당 해고 및 협박 등을 수시로 해대는 인물이다. 당시의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권력을 담당한 군부가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의 이미지가 그에게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좌익 인권변호사인 포지에 대한 묘사에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탈법적인 수단마저 불사하지 않는 남성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그는 알레한드로를 납치하기 위해 아니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여행한다. 그녀의 사랑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그녀는 또 한번 배신감을 느낀다. 언뜻 보기엔 인권변호사로서 정치범들을 변호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데올로기조차 공유하지 않는 한 순진한 여성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모습 또한 갖고있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검은 것을 흰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38)” 유능한 변호사이며, 자신이 속한 단체의 부정적인 모습에는 “정치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118)”는 이유로 합리화한다. 그렇기에 폭력적인 납치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으며, 무장한 게릴라로서 활동하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⁵⁾

5) 무장한 게릴라로 죽은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가 무장하고 경찰에 대항했다는 내용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그대로 옮겨 실은 신문보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니타도 그가 정말로 무장해서 저항하다 죽었는지, 아니면 단지 정치범들을 변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 그가 무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만 알아도 웬찮을 것 같아. 정말로 그랬다면... 죽어도 마땅하니까...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가 겁쟁고... 정치범들을 변호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면... 남 미칠 것만 같아(294).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이미 전작인 거미여인의 키스 에서도 드러난다. 거미여인의 키스 에서 몰리나의 죽음도 극좌파에 의해 사살된 것이라고 묘사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감시기관인 CISL이 관계기관에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 난 결코 자유사회주의의 뿌리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거만한 전체주의를 혐오하는 거야.
- 그럼 폭력은요?
- 폭력 역시 혐오해. 폭력을 혐오했기 때문에 페론주의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라구.
-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알레한드로 납치에 개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폭력이 아닌가요?
- 그건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 폭력이야.
- 포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폭력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가끔 현실은 그런 폭력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Puig, 1979: 118)(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가 당시의 군부정권 뿐만 아니라 페론주의를 고발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좌파와 페론주의 잘못된 결합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Roffé, 1985: 136).

이듬해인 1980년에 출판된 피글리아의 **인공호흡** 은 아르헨티나에 남아 군부정권의 검열을 견디면서도 그들이 강요하는 신화의 허상들을 밝혀내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중의 하나이다.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지만 이는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상처요 고통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탐정소설과 역사소설의 형태를 배합해 만들어 낸 피글리아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탄압을 교묘히 극복한 저항문학의 교본처럼 여겨진다.

이 작품에도 역시 두 개의 이야기 층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로사스의 몰락 직전에 자살한 엔리케 오소리오(Enrique Ossorio)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소리오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는 마르셀로 마기(Marcelo Maggi)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인 1976년 4월 작중화자인 에밀리오 렌시(Emilio Renzi)가 첫 소설을 출판한 후 삼촌인 마기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한다. 마기는 76년 당시 콩코르디아 지방

의 역사선생으로 1943년 저지르지 않은 범죄행위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1943년은 또 다른 군부쿠데타인 라우손(Rawson)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해로 그는 급진주의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며, 풀려나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야만 했던 인물이다. 군부의 억압을 가까이서 살펴보려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서는 절망한 채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마기는 부인인 에스페란사(Esperanza)의 증조부인 오소리오의 죽음에 얽힌 비밀에 의문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오소리오는 아르헨티나 독립전쟁 영웅의 아들로 1837년 로사스의 개인비서가 되어 그의 총애를 받았지만 후에 라바예(Lavalle)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듯 이 작품에선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축들인 1830년대 로사스의 독재정치, 1943년 라우손의 쿠데타, 45년 페론의 1차 집권기에 겪었던 한 가족의 비극의 역사가 1976년 현재의 역사와 중첩되어 등장한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전형적인 형태인 가족사안에 사회사를 포함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끊임없는 수난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래 이놈의 집구석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군인들 열병식만이 있었지(Piglia, 2000b: 15).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래 아르헨티나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채 단지 수많은 군부 쿠데타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는 피글리아의 언급은 절규에 가깝다. 하지만 그러한 절규는 현재의 군사정권을 과거의 독재자와 동일시하는 효과도 거둔다.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난 그 사람에게 말했어, 폭풍우는 지나가야만 한다고. 왔던 것처럼 멀리 갈 거라고 말했어. 난 이 사람들을 잘 안다고 말했어. 이 사람들은 머물려고 왔어. 이 사람들이 말한 데서 한마디도 보태지 말게나. 이 사람들은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이고.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의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야. 범죄자들의 혈통에 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지. 한마디만 하자

면, 이들 범죄자들은 패배자들이야. 그러나 그는 뭘 했지? 그는 사물들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어. 그러자 그 즉시 체포됐지. 숨어있기에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아니야. 그는 거리로 나가 감옥으로 끌려갔지. 그곳에서 파멸한 거야. 그는 낙담해서 출소했어. 자네 눈엔 그가 낙담해서 출소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 **나는 그날 밤 확신에 이르렀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엔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야.**> 상원의원은 낙관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했는가? 자네가 보기에 그가 저항한 것 같은가? 나는 했네. 나는 저항했다 말일세. 여기 이렇게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지만 저항하고 있네. 내가 마지막 저항자가 되는 건 아닐까? 밖에서 뉴스들과 메시지들이 전달되지만 가끔씩 생각한다네, 완전히 나만 혼자 남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Piglia, 2000b: 39)(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마르셀로 마기를 가두었던 43년 라우손 정권이 *살인자들을 계승한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들*이라면 76년 군부쿠데타 세력은 무엇이겠는가? 사에르가 망명지에서 군부를 로사스와 같은 도살자에 비유했다면 피글리아는 국내에서 서슬퍼런 검열을 피해 그들을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절망감에 빠져 아르헨티나를 떠났다면, 그는 국내에서 비록 “시체처럼 숨어있을지라도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고국을 떠나는 망명은 시간이 멈춰버린 죽은 공간인 유토피아에 사는 것을 의미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들이 물러난 뒤에 돌아올 고국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보는 과거와 미래사이에 낀 죽은 시간, 죽은 공간을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내겐 망명이라는 것이 유토피아였어. 그런 곳은 없어. 유배, 대탈출, 두 개의 시간 사이에 매달린 공간.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조국에 대한 추억을 갖고있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조국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지. 내게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이런 죽은 시간이 유토피아야. 그런 의미에서 망명은 유토피아지.(Piglia, 2000b: 69-70)

그렇기에 그는 역사에서 배운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군부에 저항하기로 결

심한 것이다. 로사스 정권이건, 라우손이건 모두 패하고 물러났기에 그는 희망을 갖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할 게 희망이라네. 이 사람아, 자네도 이 말을 명심하고, 굴복하지 말게나. 세상은 돌고 돌아 마지막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Piglia, 2000b: 77).

IV. <더러운 전쟁> 이후의 기억들: 산타 에비타 와 카피라이트를 중심으로

1995년에 발표된 엘로이 마르티네스의 소설 *산타 에비타* 는 군사정권이 몰락한 후의 아르헨티나 상황을 비교적 잘 대변해주는 소설이다. “무조건적인 대학살과 공포정치를 참을 수 없어서”(Eloy Martínez, 1995: 243-244) 해외로 망명했던 작가들이 군사정권의 패퇴 후 고국에 돌아왔지만 사회는 철저히 양분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단죄를 요구했고 가해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저항 속에 알폰신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결국 실패하고 메넴의 집권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선택으로 사회는 다시 보수화로 회귀하면서 민중들은 또 한번 절망한다. “과거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고 늘 되돌아오고, 그와 함께 잃어버렸던 열정들도 되돌아오곤 했다. 인간이란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이었다.”(Eloy Martínez, 1995: 243) 이러한 민중들의 절망은 자연스럽게 에비타에 대한 환상과 그리움으로 연결된다. 그녀는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쳐 민중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계획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노력했던 반대 세력”⁶⁾이 존

6) 환 카를로스 데산소 감독의 1996년 작 영화 *에바 페론* 의 시나리오 작가 호세 파블로 페인만의 언급으로, 송병선이 쓴 영화 속의 문학 읽기 중 「에비타와 에바 페론」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재했으며, 결국 암에 걸려 33세에 생을 마감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서 그녀만큼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로 드물다.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 사심 없는 여인으로 기억하며, 그러기에 그녀를 “‘가난한 자들의 수호신’ ‘희망의 여신’ ‘해방자인 성 마르틴 장군’ ‘정신적 지주’ ‘국가의 명예 부통령’ ‘노동의 순교자’ ‘팜파의 여주인’ ‘라플라타의 주인’ ‘킬메스.산 라파엘.마드레 데 디오스의 주인’”(Eloy Martínez, 1995: 20) 등등으로 부르면서 민중의 희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녀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남자를 이용해 정상에 오른 창녀로서, “권위주의적이고 잔인하며 말투까지 천하고 속된”(Eloy Martínez, 1995: 79) <야만성의 전형>으로 기억했다. 그러므로 “인디오들이나, 부도덕한 흑인들, 크로토 부족들, 도둑들, 야생의 가우초들, 폴란드 배로 밀입국한 결핵에 걸린 창녀들, 시골 촌놈들”(Eloy Martínez, 1995: 70)처럼 아르헨티나에서 사라져야 할 악이라고 믿었었다. 이렇듯 양분된 아르헨티나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예비타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비타에 대한 평가를 이토록 극과 극으로 나눠놓았을까? 페인만에 의하면 그것은 그녀의 두 가지 열정에 기인한다. 그녀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둘째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잠재우려 노력했다(송병선, 2001: 45-59). 이러한 민중적인 모습과 독재라는 상반된 모습이 양분된 평가를 낳는 것이다. 민중들에게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에비타가 살아 있을 때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Eloy Martínez, 1995: 185)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더 많은 가능성들을 꿈꿀 수 있었다. 반면에, 중산층들은 “야만인들이 어둠을 틈타서 무더기로 몰려와 자신들의 재산과 집, 직업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악몽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Eloy Martínez, 1995: 18).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azar)의 「점령된 집」(Casa tomada)은 당시 중산층들의 강박적인 두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자신이 문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에비타가 야만성의 부활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믿었었고”(Eloy Martínez, 1995: 70), 엘로이 마르티네스 또한 문명인이었기에 에비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한평생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화해시키지 않고선 아르헨티나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선 민중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에비타에 대해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에비타에겐 군사정권의 수많은 조작과 왜곡마저 물리치고 부활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문장들은 군사정권이 민중들에게 에비타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독재자와 그의 아내의 사진이나 동상들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행위나, ‘페론주의’나 ‘제삼의 위치’같은 단어들과 PP(페론당)이나 PV(페론 돌아와요)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행위, 독재자를 위해 시위를 모집하는 행위는 육 개월에서 삼 년의 징역에 처한다(Eloy Martínez, 1995: 16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심ियो. 그녀를 모독할 수 있고 영원히 생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 말ियो.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소. 정부 재산으로 보석들을 구입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소. 그녀가 갖고있는 보석들은 다 선물받은 것들이요. 혹시나 나치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몇 달을 허비했는지 모르오. 신문도 읽지 않는 여자인데 무슨 놈의 얼어죽을 나치 스파이였겠소?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아 출판하려고 준비중ियो. 2인자의 감춰진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소. 사백 페이지도 넘어요(Eloy Martínez, 1995: 300).

군부 세력들로 표상되는 보수세력들이 아르헨티나의 권력층에서 물러난 지 십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회는 다시 보수화의 길로 회귀했다. “그들은 권력에서 물러나기 전에 잔인한 대학살을 벌였다. 그들은 목표로 삼은 희생자가 집에 있나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는 정확히 오분 후에 그들 집으로 들이닥쳐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조국의 앞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고문했다.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이 생각

만 조금 달라도 혹시 복수의 손길이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마음 졸여야 했다”(Eloy Martínez, 1995: 386). 그런데 이런 보수세력들의 폭력성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비이성적 폭력의 근저엔 항상 에비타와 페론으로 대변되는 포퓰리즘과 그에 대한 보수세력의 저항만이 존재할까? 호르헤 마론나와 페세티의 소설 *카피라이트* 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보여준다.

2001년 호르헤 마론나와 페세티가 공동으로 발표한 소설 *카피라이트* 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소설이다. “나는 지금은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라 만차 지방의 어딘가에서, 총살형 집행 대원들 앞에 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그레고리오 잠자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끔찍한 벌레로 변해 침대에 있었던 먼 옛날 오후를 떠올려야 했다.”(Maronna and Pescetti, 2001: 7)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카피라이트 는 말 그대로 난장판에서 한번 실컷 돌아보는 카니발 그 자체이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 따로 거주하는 두 작가가 인터넷을 통해 공동으로 쓴 이 작품엔 기존 사회의 모든 권위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작품의 내용답게 정치를 풍자하는 장면들도 끊임없이 등장한다. 어느 날 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서점에 들어갔던 루카스(Lucas Modím de Bastos)는 우연히 미셸(Michelle)이라는 미인을 만나게 되고, 문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소설을 쓰게 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페이지의 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문학의 백치(Maronna and Pescetti, 2001: 20-21)였던 그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작들의 부분 부분을 짜깁기하는 표절이라는 방법밖엔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소설은 말 그대로 내용도 주제도 알 수 없는 모자이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설이 우연한 실수들을 통해서 <오늘의 작가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말 그대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독자들은 그 난장판을 통해 사회의 모든 가치들이 전복되는 씩씩한 경험을 갖게 된다.

소설은 두 개의 층위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루카스가 집필한 소설 속의 소설 <카피라이트>를 통해 문학을 풍자하는 부분이며, 두 번째

는 루카스와 관련된 사회에 관한 풍자이다. 그런데 본 논문의 주제는 군사정권의 폭력성과 그에 대한 기억의 방식이므로 이 글에서 논의될 주제는 아무래도 후자에 국한된다. 즉, 사회의 기존 권위에 대한 풍자, 그 중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풍자 부분이 이 글에서 다뤄질 내용인 것이다. 소설 속엔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조작되고 왜곡되는 지 잘 보여준다. 작품 초반 87%의 지지율을 보이던 야당인 민주국민전선 페나데(Fenadé)의 대통령 후보 스마르베크타(Smárbekta) 박사는 도지(Doursey)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 선거 전문가들의 작전과 군터(Günter)에 의해 조작된 섹스 비디오 스캔들로 인해 정역 5년형과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을 받고 낙마하며, 3%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했던 무능하고 음탕한 대통령은 군사재판이라는 철권적인 수단과 조기의회해산 등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며 15년 간의 독재체제를 연장하기에 이른다. 선거를 도운 미국인 선거고문들은 금융거래자유화조치를 이끌어내고 군터는 농업법의 통과를 얻게된다. 마약과 성에 물든 부패한 정치권력이 공작과 선거조작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여 국가의 부를 유출시키는 것이다.

승리감에 들떠있는 도지의 부축을 받으며 취임식 연설에서 대통령은 그의 첫 정책들을 발표했다. 취임연설은 소녀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으로 시작됐으며, 석방된 소녀들은 가족들과 다시 만나 포옹을 한 채 연설의 끝을 참관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손을 뺀 장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 소녀와 그 부모들이 대통령에 감사하며 울면서 입맞춤하는 장면 등 모든 장면이 카메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정치행위 금지 조치를 당한 스마르베크타도 인도적인 이유로 사면했다. 사전 통보가 요구됐던 금융거래량의 한도를 없애는 **금융거래의 무제한적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계속 발표됐다. 액수가 얼마가 되든 돈을 송금하고 수취하는 제한이 없게 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계좌를 추적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덧붙여졌고, 그 주주에 대한 보장 및 면세가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

기 위한 것임이 부연 설명되었다.

취임식에 내빈으로 초청된 줄 플라마리에와 군터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농업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었다. 라이엔바하라 명명된 변종에 대해 “국가 밀” 선포식이 시행되었다. 라이엔바하 밀은 경이로운 유전자변형의 조작물로 일반 밀보다 세 배의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수출 주력 품종이 될 것이었다. 군터는 미소를 지었고, 플라마리에는 **그것이 군터가 대통령에게 은밀히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임을 알고 긴장한 채, 금융정상화 세계기금에 급히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 자리를 나갔다**(Maronna and Pescetti, 2001: 213-214)(강조는 필자의 것).

사실 라틴아메리카의 빈번한 쿠데타는 항상 경제적 이권과 맞닿아 있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의 지적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끊임없는 쿠데타와 혁명.스파이극.아마존 밀림 속에서의 사건은 모두 지하자원의 부산물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빈번한 쿠데타는 항상 석유 이권의 공여 전후에 발발하고 있으며”(갈레아노, 1999: 249), 가이아나의 세디 제간 사회주의 정권은 보크사이트와 망간 때문에 CIA의 공작에 의해 붕괴됐고, 초석의 발견은 태평양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구리는 칠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테 정권을 붕괴시킨 가장 큰 이유였으며, 사탕수수.니켈.망간 등은 미국이 쿠바혁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러한 지하자원 중 가장 매력적인 지하자원은 바로 석유이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더하여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한 원료이고, 화학공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원료이며, 군사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전략물자이다. 또한 석유만큼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점화가 발달되어 있는 부는 없다.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군사쿠데타가 그러한 매력적인 석유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1930년 9월 6일 민족주의 지도자 이포니토 이리고젠이 호세 페리스 우리블의 반란에 의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아르헨티나 국회는 석유의 국유화법을 가결하려 하고 있었다. 라몬 카스티소 정부는 43년 6월 미국 자본에 의한 석유채굴을 촉진하는 협정에 조인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붕괴했다. 55년 9월 후안 도밍고 페론은 국회가 스탠더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에의 개발권을 승인하려 할 때 망명하고 있었다. 아르투로 프론디시는 석유채굴에 관심을 가진 기업에 나라의 하층도 모두를 제공하는 입찰공고를 냈을 때 삼군에 극히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여러 차례 불러 일으켰다. 59년 8월의 입찰은 응찰자가 없어 취소되었다.

곧바로 재입찰을 발표했지만 60년 10월에 이번에도 무효가 되었다. 프론디시는 카르텔 가맹의 미국 기업에게 몇몇 개발권을 주었는데, 영국의 이해는 62년 3월의 그의 실각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르투로 이라아 대통령은 그들의 개발권을 취소하고 66년에 타도되었다. 이듬해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 대통령은 내분 속에서 미국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드는 탄화수소법을 공포했다(갈레아노, 1999: 289-290).

석유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데타를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간에 전쟁기도 일으켰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가장 악명 높은 독재정부로 전복되어야만 하는 것도 석유 자원 때문이며,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것도 모두 석유 때문이다. 군사쿠데타와 수많은 전쟁의 배후엔 석유와 관련된 이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쟁이나 쿠데타 또는 선거에 승리한 정권은 국내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자유치를 표방하며, 결국은 국가의 기간산업 및 자원이 제국주의에 인도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을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불순분자로 단죄하며 치유해야 될 병에 걸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정적을 소수의 반란집단으로 매도하는 소셜 속 대통령처럼 말이다.

- 이런 것을 기사화 할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녀의 옆에 앉으면서 대통령이 물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알 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조국은 항상 스타르벡타 같은 소수의 반란 집단에 위협받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당의 깨끗한 전통들을 흠집내고, 위대한 국가의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정직하고 사심 없는 우리의 명예로운 노력들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요.

7) 1932년에서 35년까지 진행된 차코 전쟁을 일컫는다.

시종들이 박수를 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대통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 어찌면 당신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오랫동안 꿈꿔 왔던 여행이나, 가정의 가구를 바꾼다든지, 또는 빛을 다 갚는다 라든지...(Maronna and Pescetti, 2001: 63-64).

V. 결론

1976년에서 83년까지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서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공포만 남겨놓았다. 60년대와 70년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었던 민중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욕구는 강요된 침묵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해냈다. 어설픈 저항은 죽음과 실종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그랬기에 그를 견딜 수 없었던 수많은 지식인, 작가들은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향수를 달래며 분노와 싸워야 했다. 남겨진 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역사에 영원한 암흑은 없었다. 로사스의 독재정권도, 수십 차례에 걸친 군부 쿠데타도 모두 막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왈쉬처럼 국내에서 직접적인 고발을 행하다 희생된 사람들, 푸익처럼 국외에서 아르헨티나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한 작가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암울한 시절을 꿋꿋이 버텨온 피글리아 같은 작가들 덕분에 군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종말이 아르헨티나에 활기찬 미래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알폰신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보수층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뒤이은 메넬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도 아르헨티나의 국부만을 유출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랜 기간 군부독재와 식민경험이라는 암울한 경험을 공유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후의 정체성 형성 노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재건

과정>과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아직까지 상존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에 대한 원인분석과 치유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성적인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흐지부지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은 비극적 역사가 언제라도 재발할 위험성을 잉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80년대의 경제위기 속에 폐기된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속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 또한 실패한 것도 우리의 눈길을 잡아끈다. 80년대 말 포스트모더니즘이 범람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러운 전쟁> 시기 아르헨티나 문학과 그 이후 세대들의 기억의 방식에 대한 재조명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사에 대한 망각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이 새로운 비극의 탄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배운 과거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한 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만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Los últimos recuerdos dolorosos y de deshonra en la política argentina que ha padecido tantos dictadores y golpes de Estado militares desde el siglo XIX, son los de la llamada <guerra sucia>. Entre 1976 y 1983, la guerra sucia argentina ha acabado con todo lo racional y ha dejado a los ciudadanos sólo el terror. El deseo sano y activo del cambio social del pueblo se ha transformado en el silencio forzado, porque la resistencia podría provocar la muerte y la desaparición. Por ello, la mayoría de los intelectuales -entre ellos los escritores- prefirieron salir del país para luchar contra los dictadores militares. En el extranjero han escrito obras en las que denuncian los delitos de los militares. Los que se quedaron en Argentina tuvieron que tolerar la censura con la sola

esperanza en la historia que enseña que no hay oscuridad eterna. En la historia, dictadores como Rosas y otros militares siempre han terminado destruidos por la resistencia del pueblo.

El presente artículo consta de cinco capítulos. En el primero tratamos la introducción al problema, objeto de nuestro estudio. En el segundo trabajamos la situación histórica y literaria argentina después del año 1970. En el tercero, analizamos las obras de Manuel Puig y de Ricardo Piglia como ejemplos de resistencia a los militares. *Pubis angelical* de Manuel Puig representa al tipo de obras en las que se resiste a los militares desde el exilio. *Respiración artificial* de Ricardo Piglia, las obras de los que se quedaron en el país. En el cuarto capítulo tratamos las obras de Tomás Eloy Martínez, de Jorge Maronna y Luis María Pescetti como ejemplos que abordan los recuerdos sobre la guerra sucia. En *Santa Evita* Eloy Martínez reinterpreta la mitología de Evita al buscar la solución de la reconciliación de los argentinos divididos. Jorge Maronna y Luis María Pescetti denuncian la intriga imperialista como causa principal del deseo fracasado de cambio social. Y en un capítulo final reunimos las conclusiones del estudio.

Key Words: Literatura Argentina, Guerra Sucia, Resistencia, Exilio, Recuerdos /
아르헨티나 문학, 더러운 전쟁, 저항, 망명, 기억

논문투고일자: 2003. 10. 1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1997), 「라틴아메리카의 고독」, in 송병선 편저,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과 지성사, pp. 187-194.
- 김광우(2003), 몽크, 쉴레, 클림트의 표현주의, 미술문화.
- 송병선(1997),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과 지성사.
- _____(2001), 영화 속의 문학 읽기, 책이 있는 마을.
- E. 갈레아노(1999), 수탈된 대지, 박광순 역, 범우사.
- Amícola, José(1992), *Manuel Puig y la tela que atrapa al lector*, Bs.As.: Grupo Editor Latinoamericano.
- Avellaneda, Andrés(1986), *Censura, autoritarismo y cultura: Argentina 1960-1983*, Buenos Aires: Centro Editor América Latina.
- Corbatta, Jorgelina(1999), *Narrativas de la Gueera Sucia en Argentina*, Buenos Aires: Corregidor.
- Eloy Martínez, Tomás(1995), *Santa Evita*, México: Joaquín Mortiz.
- Jara, René y Hernán Vidal(1987), *Ficción y política: la narrativa argentina durante el proceso militar*, Bs.As.: Alianza.
- Jordán, Alberto R.(1993), *El Proceso 1976/1983*, Buenos Aires: Emecé.
- Lafforgue, Martín(1999), *Antiborges*, Argentina: Javier Vergara.
- Maronna, Jorge and Luis María Pescetti(2001), *Copyright: plagios literarios y poder político al desnudo*, Barcelona: Plaza & Janés.
- Masiello, Francine(1988), “La Argentina durante el proceso: las múltiples resistencias de la cultura”, in Saul Sosnowski, *Represión y reconstrucción de una cultura: el caso argentino*, Buenos Aires: Eudeba, pp. 11-29.
- Orgambide, Pedro(1999), “Borges y su pensamiento”, in Martín Lafforgue, *Antiborges*, Argentina: Javier Vergara, pp. 257-331.
- Piglia, Ricardo(1992), *La ciudad ausente*, Bs.As.: Sudamericana.
- _____(2000a), *Crítica y ficción*, Bs.As.: Planeta.
- _____(2000b), *Respiración artificial*, Bs.As.: La Nación.

- Puig, Manuel(1979), *Pubis angelical*, Barcelona: Seix Barral.
- Roffé, Reina(1985), “Manuel Puig: del kitsch a Lacan”, *Espejo de escritores*, Hanover: Norte, pp. 129-146.
- Saer, Juan José(1980), *Nadie, nada, nunca*, México: Siglo XXI.
- _____ (1995), *La historia y la política en la ficción argentina*, Santa Fe: Univ. Nac. del Litoral.
- Sarlo, Beatriz(1988), “El campo intelectual: un espacio doblemente fracturado”, in Saúl Sosnowski, *Represión y reconstrucción de una cultura: el caso argentino*, Buenos Aires: Eudeba, pp. 96-108.
- Valenzuela, Luisa(1982), *Cambio de armas*, Hanover: Norte.
- _____ (1983), *Cola de lagartija*, Bs.As.: Bruguera.
- Walsh, Rodolfo(2000), “Carta a mis amigos”, in Jorge Lafforgue, *Textos de y sobre Rodolfo Walsh*, Bs.As.: Alianza, pp. 280-282.